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사회교육 현황과 과제

김 재 기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Status and Tasks of Social Education Programs of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Farming Promotion Center

Jae-Ki Kim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mmary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Farming Promotion Center is a unique social education institution for the farmer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for future farmer candidates with a expert technology, successors to the rural leaders of Saemaul Movements, expert farmers, the students of farming practice course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the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social education courses.

It is an urgent problem to recruit the experts in social education, and in specialized and advanced farm management technology. A committee for the betterment of the soci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consisted of the social education experts, and alumni of the Farming Promotion Center to share their farming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achieve the successful goal in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Farming Promotion Center, the well planned field trips and the supervised farming practices should be secured,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for the people finishing the courses of th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formulated.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의 사회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재촉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활력을 찾아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두뇌개발센터가 될 대학의 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이며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줄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더 없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순천대학교는 지역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전통적 여건과 특수성에 맞추어 농촌지역사회 주민교육을 전담할 영농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토대위에서 국가가 성립

되어 발전되어 왔고 특히 전라도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며 우리 나라의 농업을 지켜 줄 보루가 될 지역이어서 이 지역의 농업을 지켜 줄 유능한 농업후계자의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70년대의 산업개발 전략에 맞추어 농촌의 산업인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커져 가고 있을 때 농촌지역에 새로운 지도력과 전문 농업기술을 소지한 새농촌지도자의 충원이 요구되어 지역의 농업계 대학의 역할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 1월에 순천농업전문대학(순천대학 전신)과 전라남도가 제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새농촌지도자를 육성·충원할 목적으로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운영 하는 데서 지역대학이 지역사회개발 선도의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회교육 봉사를 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농교육기관을 마련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순천대학교에 부설 영농교육원이 설립되었고,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이 대학 자체로 실시하는 농촌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그후 농민후계자 육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영농교육원은 농민 사회교육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꾸준히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개혁이 된다는 믿음으로 줄곧 20여년을 농민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영농교육원의 대농민 사회교육 활동을 교육부는 재학생교육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우선지원에서 제외하였고, 농림부와 전라남도 당국에서는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면서도 본연의 행정지원업무 성격과 멀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재정적 지원계획에서 밀려서 어렵게 교육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내외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농업의 발전형태에 따라 농업노동의 형태 또한 달라져 가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농민들의 요구와 농업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향도 달라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대학 당국은 새로운 교육개혁과 개방화·특성화에 맞춰서 지역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열린 교육을 시켜야 되며, 또한 통일 대비 농업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대학의 교육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세계화와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인식과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 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을 시켜 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대학당국과 영농교육원도 그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용의 분석과 개선방향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아 영농교육원의 제반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로서는 영농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대학의 발전과제와 연계하여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1) 대학 부설 영농교육원의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분석·정리하여 그간의 교육프로그램상의 특성을 살피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료를 제공한다.

2) 영농교육원의 운영방향과 내용을 점검하여 정보화와 열린 교육시대에 알맞는 대학사회교육원으로서의 영농교육원 운영방안을 모색·제시한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영농교육원에서 과정별로 운영해 오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분석·연구한다.

- 1) 농민후계자 육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 분석
- 2) 농업전문경영자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 분석
- 3)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 분석
- 4) 농업교육과 학생 영농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 분석
- 5) 대학생 사회교육 실습과정 운영내용 분석
- 6) 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 분석

나. 연구방법

- 1) 영농교육원 교육과정 운영내용 및 실적자료를 분석 정리한다.
- 2) 교육과정별 교육이수자중에서 현재 교육목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교육수용 태세 및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 3) 영농교육원의 교육원장 역임교수 및 사회교육 전문가들과 영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II.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현황

1. 영농교육원 설립 배경

우리 나라의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농업이 전문화 및 자동화 농업단계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받은 농업인력의 양성·충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등교육 이수자들로 하여금 정착영농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지역사회 개발을 선도해야 할 지역국립대학에 요구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었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근대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농촌 근대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지닌 유능한 새마을지도자와 농민후계자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대학내에 농촌지도과 등의 학과 설치와 더불어 대학 내에 사회봉사적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대농민 사회교육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순천농업전문대학(순천대학교 전신)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과 자매부락 육성지도사업 등을 위하여 향토개발연구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향토개발연구소로 하여금 대농민 사회교육 전담부서가 되어 상설 새마을학교의 새마을지방요원 교육과 더불어 시민사회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1978년초에 전라남도 당국은 지역 새마을운동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후보새마을지도자 육성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후보새마을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충원할 계획으로 순천농업전문대학과 전라남도가 제휴하여 「전라남도 시·군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을 만들어서 전라남도내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 추천에 의하여 위탁받은 학생들을 입학시켜 정규교육 과정 속에서는 학과별로 교육을 받게 하고 방학기간중에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들을 교육하였다.

1982년에 순천농업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개편되면서 향토개발연구소의 업무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연구를 위한 새마을연구소(현 지역개발연구소)와 재학생 및 졸업생 영농교육과 대농민 사회교육을 전담할 영농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대학부속농장위에 건립된 영농교육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및 농직업인들에게 농업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하였다.

영농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새마을지방요원 교육과정,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과정, 농민후계자 육성교육

과정, 농업전문경영자 교육과정, 농업교육과 학생 영농실습 교육과정, 사회교육 전문요원 교육이수자의 사회교육 실습과정, 시민을 위한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다.

2. 영농교육원의 교육목표

영농교육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갖추고 대농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경쟁시대를 맞아 전문화 농업과 자동화 농업시대를 선도해 나갈 새 농촌지도자와 영농후계자 및 농업전문경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업정보이론, 커뮤니케이션 개발이론 및 지역주민을 결속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습득케 하여 21세기 우리나라 농업전반을 맡아 이끌며 농촌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영농교육원 교육과정 내용

영농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크게 재학생 교육, 졸업생 교육, 농민(시민) 사회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학생 교육으로 실시해 온 교육 프로그램별 내용의 대강을 보면,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후보새마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으로 연간 90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과정과 실천적 농업교사 양성훈련을 목적으로 영농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4주간의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학생 영농실습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리고 사회교육 1급 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교육 실습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4주 이상의 사회교육 실습과 농학계 각 학과의 영농실습생 교육과 동아리 M. T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졸업생 교육으로는 졸업생중 영농후계자가 되고자 하거나 농업전문경영자가 되고자 한 졸업생에게 3개월 이상의 영농후계자 육성교육과 농업전문경영자 과정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민사회교육으로는 순천시·송주군 상설 새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별로 추천 받은 인원을 새마을 지방요원으로 교육하는 활동과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지방자에 대한 농민후계자 육성교육을 농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의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농후계자 육성교육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계획의 실시에 따라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교육을 하여 왔는데 농촌 청소년 인력의 격감과 더불어 이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지고, 그간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교육받고 영농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요망되었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문화 농업 및 자동화 농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자를 육성해 내기 위하여 1993년부터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순천시와 지역사회 기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의뢰해 와서 실시하였고, 순천시와 송주군의 새마을 지방요원 양성을 위한 순천시·송주군 상설 새마을학교 운영과 순천시와 협동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순천지역내 「서비스업」종사자 2,100명을 대상으로 봄과 여름철로 나누어서 국가행사를 앞두고 서비스의식과 선진의식

* 후보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은 1978년 1월 순천농업전문대학 이상래학장과 전라남도의 고건 지사가 함께 합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능한 후보새마을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가 제정한 전라남도 조례준칙이다.

을 높이고 국제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상설 1일 시민대학을 설치·운영하였다.

4. 영농교육원의 교육조직 및 시설현황

가. 영농교육원 교육조직 및 운영

영농교육원의 교육조직의 대강을 살펴보면 교육원장을 두고 교육원장은 농과대학 및 사범대학 농업교육과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부, 생활지도부, 사무실을 두어 운영하게 하며, 교수부는 연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업무와 교육교재 제작 및 보급업무, 교육강사 관리업무, 현장실습 및 선진지 견학지도 등 제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지도부는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상담지도를 실시하며, 현장 실습지 및 선진지 견학 유대업무와 교육생과 수료생 자치조직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무실은 영농교육원의 제반 사무업무와 영농교육원 시설 및 환경관리, 급식관리, 영농자금 관리운영과 교육이수자와 자원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¹⁾

영농교육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농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되며 그 내용의 대강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으

로 살펴 볼 수 있다.

나. 영농교육원 시설현황

영농교육원은 순천대학교 부속농장을 교육농장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원 건물 내에 80명이 합숙할 수 있는 합숙교육 시설과 조직배양실 및 컴퓨터 연습실 등을 확보하고 있다.

Ⅲ. 영농교육원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1. 농민후계자 육성 교육과정 운영

가. 농민후계자 육성 교육과정의 설치 배경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급진되면서 농촌의 생산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개발을 추진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을 지닌 새 농촌지도 인력의 충원이 중대과제로 떠오르게 되자 농업계학교 중심의 농촌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요구되었

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순천농업전문대학에서는 1976년에 농촌지도과를 설치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지닌 새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농촌지도사나 정착 영농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하였다. 한편 1978년에 순천농업전문대학이 전라남도와 제휴하여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을 만들어 전라남도 각 시·군에 시·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 및 관리지침(전남 새마을 1194-30호, 1978.1.17)을 확정·통보하여 1978년 4월에 전남지역 16개 군에서 29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순천농업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의뢰해 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학기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때 졸업생중

1)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규정, 순천대학교 규정집, 1992.

정착영농을 희망하거나 정착영농자들을 위하여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 것이 농민후계자 육성 교육과정의 효시이다.

제1회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및 영농후계자 육성 특별교육을 198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34일간의 교육일정에 37명이 수료하였다.

순천농업전문대학이 중심이 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및 영농후계자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은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들을 정착 영농 지도자로 양성·충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이 과정의 특징적 의미가 있다.

19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면서 농수산부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대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는 농촌개발의 핵심요원이 될 농과대학과 농업전문대학 졸업자를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982년도부터 각 농과계 대학별로 적정인원을 배정하여 해당 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순천대학에는 1982년도에 5명이 배정되었다.

그 후 1983년도에는 정착 영농교육을 잘하고 있는 순천농업전문대학 영농교육원과 진주농림전문대학 새농촌영농자양성소 출신자들에게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 배정을 각각 별도의 20명씩의 배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순천농업전문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대학에 배정하는 5명과 농수산부가 별도로 배정하는 20명을 합해 매년 25명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영농자금 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추천자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자 농수산부 추천기준과 맞추어서 대학자체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의 대강을 보면,

- ①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 ② 순천대학 영농교육원 영농교육 이수자
- ③ 순천대학 농업계 졸업자
- ④ 영농기반을 갖춘 자
- ⑤ 35세 미만의 병역을 필한 자
- ⑥ 부모의 동의가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영농교육원 특별교육 이수자에 대한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농수산부는 특별교육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규정화 함에 따라 그간 1개월 내외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내용을 1984년부터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시켜 90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까지 16회에 걸쳐 영농후계자 육성 특별교육을 실시해 왔다(표 III-1 참조)

나. 교육목적과 방침

영농후계자 육성 교육목표는 정착 영농 희망자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새 농촌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에 있다.⁹⁾

영농후계자 육성 교육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은 전라남도에서 선발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지망자와 순천대학교 농학계열 졸업자 및 재학생으로 전남지역에 기본적인 영농기반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교육한다.

2) 교육은 전원 합숙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상호 교육과 현실성 있는 실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능한 농민후계자로서의 새로운 지도력과 전문 농업인의 능력을 배양한다.

3) 교육과정은 농업기술 및 농업전문 경영교육, 전공 탐색교육, 선진 농업단지 견학, 현장실습, 교육평가 및 정리 등으로 편성·운영

2)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제 15회 영농후계자 육성 특별교육 계획서 P. 6, 1994.

한다.

4) 강사는 본 대학교 교수진과 초청강사(전문가 및 독농가)로 구성·운영한다.

5) 교육비는 전라남도 지원금 및 피교육자 부담금으로 운영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 내용

영농후계자 교육 인원은 일반적으로 30명 내외로 3개월간의 교육일정속에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내용

교육 단계	교육 과정	교육 일정	교육 장소
1 단계 (농업기술 및 농업전문 경영교육)	1.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2. 입소식 3. 농업기술교육 및 실습 4. 농업전문인력교육	1994. 7. 3 ~ 7. 21	영농교육원
2 단계 (선진지 견학)	1. 선진농업단지 및 독농가 견학	1994. 7. 22 ~ 7. 24	전국 일원 농업단지 및 독농가
3 단계 (현장실습)	1. 현장실습교육 2. 현장실습 보고회 3. 현장실습 증빙서 제출	1994. 7. 26 ~ 9. 22	독농가 농장 및 자가농장
4 단계 (교육평가 및 정리)	1. 영농설계서, 향토개발계획서 작성 2. 교육평가 및 정리 3. 동문회조직 및 수료식	1994. 9. 23 ~ 9. 24	영농교육원

<자료·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제 15회 영농후계자 육성 특별교육계획서 1994.>

라. 영농후계자 교육과정 운영내용 및 실적

영농후계자 교육과정 운영은 최초에는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과 정착영농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자유로이 신청을 받아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재학생 중심으로 한 교육이었으나 1981년도부터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계획이 정부로부터 발표되면서 농업계학교 졸업생과 순천농업전문대학 영농교육원 및 진주농림전문대학 새농촌 영농자 양성소의 영농교육 이수자들에게 영농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후보 새마을 장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중심이 된 대농민 사회교육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중 정신교육과정(영농사상 고취 부문)이 강조되었던 부분이 1983년도부터는 현장 견학 및 현장실습이 중심이 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한 신 기술 배양 교육 부문이 강화되는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운영형태가 달라지게 되었고 교육기간도 30일 내외이던 것이 90일 이상으로 연장되었다.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면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부문은 교육비 지원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다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농업상황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초창기 3년간(재학생 중심) 교육은 정신교육과 선진지 견학 학습 및 리더십 훈련에 비중이 컸으며 그후부터는 선진지 견학 및 현장실습 교육이 강화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경영기술 교육이 강조되어 오다

가, 90년대부터는 자동화 및 전문화 농업시대에 맞추어 농업유전공학, 조직배양 및 농업컴퓨터 응용분야 등을 교육과정 내용에 편성·운영하였다.

그간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과 정착 영농희망자와의 합동으로 실시되었던 영농후계자 교육(농민후계자 교육) 실적의 대강을 보면 다음 표(III-1)와 같다.

<표 III-1>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및 정착영농희망자(농민후계자) 교육실태 및 교육비 지원내용

구분 년도별	교육일시 및 기간	교육장소	교육생		교육수료 총인원	교육비 (단위 : 원)
			장학생	영농 희망자		
1980 (1기)	80. 12. 26~81. 1. 27 (33일간)	영농 교육원	35	2	37	전라남도 6,000,000 지원
1981 (2기)	82. 2. 7~ 2. 24 (18일간)	"	28	3	31	전라남도 4,000,000 지원
1982 (3기)	82. 12. 10~12. 31 (21일간)	"	36	8	44	전라남도 4,000,000 지원 순천대 1,338,871
1983 (4기)	83. 11. 23~12. 12 (20일간)	"	15	27 (졸업생)	42	교육생 부담 2,430,000
1984 (5기)	84. 7. 2~ 9. 29 (90일간)	"	17	26 (졸업생)	43	교육생 부담 2,000,000
1985 (6기)	85. 7. 22~10. 19 (90일간)	"	15	25 (졸업생)	40	전라남도 6,000,000 지원 교육생 부담 1,502,000
1986 (7기)	86. 7. 21~10. 18 (90일간)	"	7	29	36	전라남도 6,000,000 지원 교육생 부담 1,450,000
1987 (8기)	87. 7. 20~10. 17 (90일간)	"			28	지원 : 6,000,000 자비 : 1,300,000
1988 (9기)	88. 7. 15~10. 12 (90일간)	"			29	지원 : 6,000,000 자비 : 1,440,000
1989 (10기)	89. 7. 18~10. 14 (90일간)	"			28	지원 : 6,000,000 자비 : 1,440,000
1990 (11기)	90. 7. 16~10. 12 (90일간)	"			29	지원 : 9,000,000 자비 : 1,000,000
1991 (12기)	91. 7. 1~ 9. 30 (90일간)	"			29	지원 : 9,000,000 자비 : 1,000,000
1992 (13기)	92. 6. 28~ 9. 26 (90일간)	"			28	지원 : 12,000,000 자비 : , 900,000
1993 (14기)	93. 6. 27~ 9. 25	"			30	지원 : 12,000,000 자비 : . 900,000
1994 (15기)	94. 7. 3~ 9. 24 (90일간)	"			21	지원 : 12,000,000 자비 : 8,500,000
1995 (16기)	95. 9. 11~10. 14 (1~4기:기당 5일합숙교육)	"			87	지원 : 18,710,000 자비 :
계					582	

<자료·영농교육원>

마. 농민후계자 육성교육 개선방향

1) 농민후계자 육성 교육과정의 지속적 운영

농민후계자 육성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이수자들의 본 과정 참여실태와 교육과정 운영내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와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받기 위한 보상에 의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본 과정을 이수하면 정착영농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응하면서 본 과정의 설치운영은 잘한 일이고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반응하였다.

농민후계자 육성 교육과정이 10년 과정을 넘어서면서 농어촌에 35세 이하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후계자 신청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5년 이상의 영농경험을 가진 청장년 층의 농업경영인들이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과 농업정보활용 기술 등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농업전문경영인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 발전시킴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의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교육비를 농어민후계자 과정과는 달리 외국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고 있어서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에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농과대학이 주력하게 되었다.

성인교육은 이익에 기초한 과정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마련이지만 농업의 영구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민후계자 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커짐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과정의 태동이 농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 학생들이 농업생산직 분야보다는 농업관련직이나 기타직에 종사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므로 농업생산직을 택하여 유능한 농업경영인 내지 생명산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본 과정의 지속적 유지 발전에 기초

단계가 될 것이며, 본 과정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과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농업교육의 본질을 찾고, 농과대학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합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교육전문요원 확보

농민후계자 육성교육은 90일 과정중에서 1개월 동안 합숙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견해는 대다수가 2주일 이내로 응답해오에 따라 합숙교육기간과 방법, 합숙교육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사정과 농한기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여 왔다. 본래는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계획추진 되었다가 영농교육원의 시설이 겨울철 합숙이 곤란하여 여름방학에 실시하기로 하여 줄곧 여름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영농교육원 합숙교육이 실시되고 9월과 10월경에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생들의 합숙지도와 생활지도, 레크레이션지도, 지도성 개발을 위한 리더십훈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크게 요망된다. 합숙교육시에 필요한 사회교육 전문요원 확보와 레크레이션지도, 상담지도 등 지도력을 가진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본 과정 운영 활성화의 지름길이 되리라 본다.

3) 우수한 현장실습장 및 견학학습장 개발유지

영농후계자들에게 농업에 대한 신념체계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농업기술 교육훈련을 받고 현장견학과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능한 전문 영농관리자가 직접 운영하는 독농가 농장이나 기업 농·협업

농장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영농후계자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일구어 내어 운영하고 있는 농장경영 관리체제와 농장주나 관리자의 농업 경영철학을 배워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면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은 자들이 영농정착 비율이 높고 확신을 갖고 영농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수한 견학장소나 현장실습장소 개발 유지는 영농후계자 교육의 체험학습과 농심철학을 배우고 가꾸는 중요한 교육장이 된다.

4) 교육프로그램 개발위원회 상설 운영

농업의 대내외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고, 지역 사회주민 요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그간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갖지 못하고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해 왔다. 사회교육의 성패는 사회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교육 참여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성패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농교육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회교육전문가 집단과 영농후계자 교육이수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육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5) 영농교육원 합숙시설 보완

교육생들이 1개월 정도 합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실습실, 토의실, 시청각교육실 등의 교육 직접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간접지원 시설로 체육장시설, 식당, 휴게실, 매점 등의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휴게실을 겸한 매점시설도 없고, 체육장 시설도 배구코트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합숙교육도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2. 농업전문경영자 과정 운영

가. 농업전문경영자 과정 설치 배경

1981년부터 시작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의해 양성·충원된 농·어민후계자가 1994년말 현재 전라남도 관내에 13,000여명이 선발되어 농·어촌 지역사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농업상황의 변화에 따라 농민후계자들이 지역사회개발 지도인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해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농업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들 농민후계자들이 실제 영농활동속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전문경영자로서의 교육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또한 W. T. O. 체제하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결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조직력과 지도력, 전문화 및 자동화 농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새시대의 농촌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전문경영자 교육과정을 설치하게 된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농수산부의 신농정 계획 일환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기도 하다.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의 설치운영은 각 지역별로 국립농과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은 수요탄력성이 큰 원예분야와 축산분야가 주축이 되어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원예분야 교육은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축산분야 교육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이 중심이 된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은 본 사업이 실시된 1993년도부터 년 1회 계획으로 줄곧 실시해 오고 있다.

나. 교육목적과 방침

농업전문경영자 과정 교육목표는 농업 전문경영자들로 하여금 농·어촌 개발을 위한 첨단 농업기술과 경제·문화 등에 관한 실력을 갖추고 농어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 경영능력, 농업정보 이론 등을 습득·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농업 인력의 양성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며 U. R 및 W. T. O 체제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농업전문경영자 과정 편성·운영 및 교육방침은

- 1)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을 채소, 과수, 화훼, 축산 그리고 작물 등의 전공분야를 두며 피교육자와 전라남도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2) 교육대상은 전라남도내 모든 농업경영자중 과정별 교육희망자로 한다.
- 3) 교육인원은 분야별로 25명 내외로 하고 교육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원 및 과정을 확대 조절하도록 한다.
- 4)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은 분야별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험·실습, 국내외 선진지 견학 학습, 현장실습 그리고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 5) 농업분야 첨단기술인 조직배양기술, 현미경 조작기술, 컴퓨터를 활용한 경영기법등을 습득시킨다.
- 6) 고도 산업화와 정보화시대의 농업전문 경영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정보처리 기술을 익히게 한다.
- 7) 대학과 지역사회의 제반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8) 교육방법은 강의, 실습, 사례발표, 그리고 경험나누기를 중심으로 한 토론학습을 진행한다.
- 9) 현장견학은 국내 및 국외의 선진기술

을 체험하게 하며 현장견학시 부부가 함께 참여토록 한다.

10) 교수요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교수와 현장경험자로 구성하며 전공반별 지도교수들 된다.

11) 교육비는 전라남도의 지원금 및 피교육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12) 교육이수자는 총장과 영농교육원장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내용

영농교육원에서 실시되는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은 주로 과수반과 화훼반으로 편성되며 반별 25명 정도를 모집하여 36주간(주당 1일 수업)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농업전문경영자과정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 1) 공통·전문과목의 강의와 토론학습 실시
 - 2) 실험·실습교육의 강화(조직배양 실습, 현미경 실습, 컴퓨터 실습, 시설자동화 기술 실습, 버섯재배 실습등)
 - 3) 견학학습 강화 실시
 - 국내 선진지 견학 학습(2박 3일)
 - 해외 선진지 견학 학습(6박 7일)
 - 화훼반 : 네덜란드
 - 과수반 : 일본
 - 4) 현장실습(국내 독농가 및 선진기업농장)
 - 5)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나누기를 중심으로 한 분임 토의 학습을 실시한다.

라.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운영내용 및 실적

1993년도부터 실시된 농업전문경영자 과정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를 내리는 문체는 시급한 면이 있지만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류에 맞추어 우리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전문화 내지 자동화 농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에

따른 대비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 적은 아래 표(III-2)와 같다.
된다. 그간 운영된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운영실

<표 III-2>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운영실적 및 교육비 지원내용

구분 년도별	교육일시 및 기간	교육장소	교육수료 총인원	교육비
1993	'93. 11. 3~11. 26 (14일간)	영농교육원	36명	지원 : 10,000,000 자비 : 3,600,000
1994	'94. 9. 28~11. 18 (8주간:주당2박3일)	"	40명	지원 : 36,000,000 자비 : 4,000,000
1995	'95. 4. 6~12. 7 (9개월:주1회)	"	50명	지원 : 90,000,000 자비 : 10,000,000
계			126명	

마.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운영 개선방향

1)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의 농업경영대학
원 관리자 과정 등으로 개편운영 검토

교육참여자들 모두가 본 과정의 설치운영은 대단히 좋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본 과정의 유지·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육이수자들의 본 과정의 확대발전 요구에는 영농교육원 농업전문경영자 과정을 농업경영대학원과정으로 확대개편을 적극 요구하는 자도 있었다. 또한, 농촌여성 관리자과정, 품목별(단감, 야생화 등) 경영관리자과정, 농업정보와 컴퓨터활용교육 프로그램 과정, 농업조직배양교육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을 요구하는 교육이수자들이 많았다.

위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영농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꾸준한 연구가 요구되며 농과대학내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농과대학에 농업경영대학원(식량자원개발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1개년의 관리자과정을 운영하는 방향 등으로 영농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도 적극 구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농민사회교육 전문요원 확보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계획을 전담할 사회교육 전문요원 확보가 중요하다.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에는 영농교육원 장직을 경험한 전문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거쳐 교육과정들이 확정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당해년도에 책임을 맡은 영농교육원장의 의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되므로 본 과정이 보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이익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사회교육의 원리와 방법 및 절차를 바로 알고 준비해 줄 사회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농민교육 프로그램의 기본구성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영농교육원에 농민사회교육 전문가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3) 농촌 성인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본 과정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 전원이 좋은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었다. 가능한 보다 전문화된 과정(예, 품목별 강좌개설등)을 설치·운영해 줄 것을 건의해 온 교육이수자들이 많았다.

영농교육원에서는 질문지 조사 등을 통하여 과정개설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참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만을 얻어낼 프로그램 설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동문회 조직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와 동문회 대표를 포함한 「영농교육원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유사작목 재배자 중심의 교육생 편성 운영

먼저 교육참여자들의 교육참여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 본 과정생 출석현황의 평균을 보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참여율은 성인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우수한 참여실태로 볼 수 있으며 본 과정에 대한 수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문지를 통한 교육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를 하였고, 다음이 권유에 의한 참여, 그리고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보상에 의한 참여와 대학에서 개설하는 과정이어서 참여했다고 응답한 교육생도 있었다. 이는 대학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생의 만족도 증가와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외형적 조건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 내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육참여자들은 같은 업종 및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토록 고려해야 되며 같은 지역에서 두 사람 정도의 복수참여 및 단지육성 관리자들의 참여가 교육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할 여건도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볼 필요도 있다.

5) 밝은 농업상 제시가 가능한 전문 강사 확보

전문 강사의 선정 및 구성을 보면 농민의 의식제고와 농업사상 고취 및 경영관리 기술을 숙지한 유능한 농업전문 경영자를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한 강사의 확보가 중요하다.

본 과정에 참여한 강사들의 강의참여 형태와 내용을 물었더니 순천대학교내 강사와 교외강사 모두가 충실한 강의를 하였다 라고 반응하였다. 그간의 영농교육원을 통한 다년간의 대농민 교육활동에서 강사들이 농민사회교육의 의의와 방법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도 기인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정에서는 교육참여자 모두(100%)가 대부분의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의 교육과정을 만족하고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영농교육원 교육시설의 보완

농업전문경영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을 2주간 합숙교육 형식을 취하였다가 주당 2박3일내지 1박2일 과정으로 계획·추진하였다. 다시 그후 주당 일일교육으로 변경하였다. 일일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인지 다른 과정에 비해 영농 교육시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저조했다. 영농교육원이 교육농장위에 설치되어 있고, 조직배양실과 컴퓨터 교육실등이 확보되어 있어서 실제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원 건물이 18년전에 세워졌고 합숙교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로 세워진 것이어서 유지보수가 계속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시설운영 점진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과정 운영

가.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교육과정 설치의 배경

1960년대 이후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조국 근대화」란 기치 아래 공업위주의 국가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되자 1970년대에 와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촌의 근대화 없이는 국가의 근대화가 어렵게 되자 정부 주도로 한국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 그후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급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제고시키면서 새마을운동을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방향에 발맞추어 새마을운동 지속화 방안 노력의 일환으로 새마을교육을 동원하게 되었으며, 유능한 새마을지도자의 확보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열쇠의 하나가 되어 감에 따라 다각도로 후보 새마을지도자 확보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전라남도 당국에서는 공업위주 정책에서 어려워져 가는 농업지역인 전라남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보 새마을지도자의 육성·충원이 중요하다고 보아 전라남도 당국이 1978년 1월에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을 마련하고 순천농업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당시 이상래 순천농업전문대학장과 고건 전라남도지사와의 합의하에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제도를 설치 운영하는데 기인하며 이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의 배경과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교육과정 설치 운영절차는 전라남도 지역에 유능한 새마을지도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충원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당국이 시·군별로 후보 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하여 순천농업전문대학에 위탁하여 2년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농업기술과 새로운 리더십을 배우게 하여 졸업후 시·군 지역으로 돌아가 정작영농을 하면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1978년 1월에 전라남도 도 조례로 「전라남도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이 마련, 공포되고 1978년 1월 17일에 시·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선발 및 관리지침(전남 새마을 1194-30호)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는 장학금을 선발하여 순천농업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978년 4월까지 1차로 16개 군에서 29명의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선발되었다.

순천농업전문대학은 이 학생들을 받아들여 학기중에는 각 전공별로 수업을 받게 하여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하고 방학중에는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전원과 정작 영농의지가 확고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영농교육원에서 합숙교육 형태로 교육하였다.

그후 1982년도에 순천농업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자 동사업 신청자도 줄게 되고 각 시·군에서도 추천인원이 줄어들어 활성화의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촌사회 환경의 어려움과 더불어 80년대 말에는 본 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렀다.

나. 교육목적과 방침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후보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단체장 및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들을 정작 영농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특별교육을 시켜 지역사회 후보 새마을 지도인력으로 충원시킴을 목적으로 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방침의 대강을 보면,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정작 영농희망자는 소정의 기간동안 합숙교육을 실시하여 새농촌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진보된 영농기술을 지닌 유능한 새마을지도자 및 영농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1) 교육과정은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 실시하되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단계 : 정신교육과정,
- 제2단계 : 기본실기교육과정,
- 제3단계 : 현장실습교육과정,
- 제4단계 : 학습정리 및 평가과정.

2) 전원 합숙교육을 실시하며 상호교육과 협동의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리더십을 배양케 한다

3)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특수교육비는 전남도비로 충당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내용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정신교육과 실기교육 및 리더십 훈련과정으로 대별되며 정신교육 과정은 주로 방학기간에 합숙교육으로 실시되며, 영농사상 고취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 정신교육 과정이수, 농민운동가, 독농가의 성공사례담 등의 교육이 실시되고, 실기교육 과정은 학기중에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현장탐방 학습을 실시하며, 방학중에는 현장실습 및 견학학습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기술을 배우게 한다.

리더십 훈련과정은 방학중 합숙교육을 통하여 조직훈련과 집단 토의기법, 커뮤니케이션 개발이론 및 레크레이션 지도법등을 배우게 한다.

라.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 및 교육

1978년도부터 시작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은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시·군거주자로 고교졸업 성적 50% 이내인 자 중 졸업후 5년 이상 정착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선발 추천하거나, 순천농업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동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이 되고자 한 자를 학교가 각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재학기간중 등록금을 각 시·군에서 장학금으로 지급 받으며 재학중 정규 학교교육과 방학중 특별교육을 받게 되며 방학중에 제공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정착영농을 위한 정신교육 및 리더십 배양교육을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영농후계자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어 영농자금을 대여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와 내용으로 선발되고 교육되어지는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1981년도까지는 잘 진행되었으나 1982년도에 2년제 순천농업전문대학이 4년제 순천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게 되고 시·군에서도 4년동안 장학금을 지불하는 문제가 어려워져서 인지는 몰라도 1982년도부터는 장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이수자들에게 추수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교육 이수후의 자원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마.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향

1) 도 조례 준칙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라남도 당국과의 협동교육 추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인재 육성·충원이 중요명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직도 농산업 기반이 중요한 전라남도는 체계적인 영농후계인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므로 도 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본 제도를 살려서 농과대학 특성화 사업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활성화가 요청된다. 도 조례를 현대감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본 사업의 지속화를 도모한다.

2) 순천대 재학생중 정착영농 희망학생

특별교육프로그램 설치 운영

농민후계자로서 정착영농에 참여한 영농후계인력의 70%가 비농업계임을 감안해 볼 때(김성수 1993) 지역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의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충원할 책무도 지니고 있는 우리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에 감안해 볼 때 농과대학에 입학하여 정착영농을 할 의지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전체 학생중 정착영농 의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영농교육원이 신청을 받아서 농업후계인력으로 교육해 낼 방법으로 본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대학내 농촌문제 연구회등 관련 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추진

대학내 농촌문제연구회 동아리(4-H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문제 연구 및 농촌개발연구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촌문제연구회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후계인력 양성 방안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또한 동아리 지도교수 지원체제도 적극 도입·운영한다.

4. 농업교육과 학생 영농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 영농실습 교육과정 설치의 배경

교육은 교사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교사의 양성 충원은 교육성패의 결정적 열쇠가 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으므로 유능한 농업교사의 확보가 농업교육의 성공요체가 된다.

순천대학교에서는 농업교육과를 설치하고 어떻게 유능한 농업교사 양성과정을 준비할 것인가를 농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과 농업교육과 입학생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농업교사에게는 농업교직원 확립 및 체험학습 실기지도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기존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농업교육과의 차

별화를 시도할 필요 등에 따라 영농교육실습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농업교육은 생명유기체인 농업교재를 활용하여 인격형성 작용을 돕도록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정 운영상에서 보면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농업체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영농실습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였다.

농업교육 전문가나 일선 농업계 고교 교사들의 의견에서 보면 신념 있는 농업교사가 가장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현직에 부임한 새로운 농업교사가 교육농장 및 현장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체험학습 지도와 실기지도 능력소지의 교사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자영농과 설치운영과 더불어 기숙사 합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숙교육 지도능력이 또한 농업교사 업무수행의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어서 합숙교육 방법과 자치생활 교육을 통한 리더십 배양 교육과정이 요구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업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절반정도가 농업교사 지향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들에게 밝은 농업교사상을 갖게 하는 교육도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는 신념있고 실천적 체험학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농업교사 양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의 보완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이 과정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최초에는 1학기 동안을 영농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영농교육원 자체의 다른 교육프로그램 운영문제와 더불어 영농교육원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영농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농업교육과와 영농교육원이 공동

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2학년 과정에서 1학기초에 1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하여 계획·운영되었다.

그후 영농교육원의 운영요원 부족에서 본 영농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학과 교수들만의 운영으로 줄곧 1개월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아 2주 프로그램으로 축소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다.

나. 영농실습 교육목적과 방침

1) 영농실습 교육의 목적

농업교육과 학생들이 유능한 농업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영농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십」배양과 영농실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체험합숙 지도방법을 배우게 하며, 학교 농장운영 방법과 교육농장 실습지도 및 기숙사 합숙지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2) 교육방침

① 교육은 영농교육원에서 전원 합숙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협동의식을 고취시키고 「리더십」을 배양하며 실질적인 영농실습을 통하

여 농업사상 고취와 실기실습 지도능력과 학교 농장 운영방법 및 기숙사 합숙지도 방법을 체계 한다.

② 교육활동은 공통과정 및 전공실습 분야 별로 운영하며 일과중에는 정규수업을 하고 정규 수업시간 외에는 특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한다.

③ 특별교육 과정내용은 정신교육, 실기교육, 리더십 배양교육, 레크레이션 지도교육,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④ 교육방법은 상호교육법, 문제해결법, 그룹토의법등으로 한다.

⑤ 영농교육원내의 합숙교육은 영농교육원 교육운영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⑥ 강사는 교내 및 교외강사(전문가 및 독농가)로 구성 운영한다.

⑦ 교육비는 국비와 피교육자(숙식비) 부담금으로 구성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구성내용 및 운영방법의 대강을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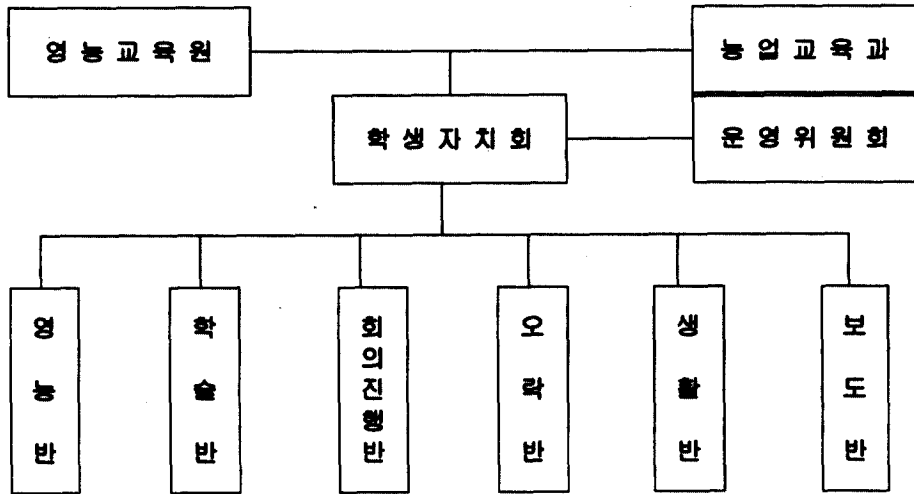
<표 III-3> 교육과정 구성내용 및 운영방법

관련부서 교육영역	영 농 교 육 원	농 업 교 육 과	비 고
정 신 교 육 (20%)	영농사상 고취 농직업관 확립	농업교직원 확립	농업교육전문가 독농가, 농민운동가
실 기 교 육 (50%)	작물교육 축산교육 농기계교육 경영기술교육	농기계실습교육법 접목실습지도법 착유 및 가축관리실습지도법 농장관리실습 등	실기교육 담당교수 및 전문가 학생교사제 운영 (영농실습반 운영)
리더십교육 (10%)	집단토의 자치활동 강화	집단토의(분임토의) 자치활동강화 야영지도	생활반 및 회의진행반 운영 자치활동 지도방법 연수
레크레이션 교육 (10%)	그룹레크레이션지도 생활체육지도	농악지도법 농악실기수련 민속놀이지도	오락(지도)반 운영
선진지 견학 (10%)	독농가 협동마을 농업연구기관	농업교교 독농가(선진농장) 농업유관기관	학살(진행)반 운영 사회문화반 운영

자치생활 교육은 영농교육원 학생 자치회 구성 운영방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과 다르게 재학생 교육에 맞게 6개 분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부서를 선정하여 참여하며 서로

기여하도록 한다. 보도반을 제외한 부서 활동자는 가능한 1주일씩 돌아가면서 경험해 보도 특 운영한다.

○ 영농교육원 영농실습생 자치회



1) 농업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과외)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그 전제

① 농업은 생명유기체를 다루므로 정규 교과시간 만으로는 적시에 적절한 실험·실습을 할 수 없다는 점

② 농업교육과 입학생들 구성에서 농업 및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농업교사 지향적인 의지를 갖고 입학한 학생들이 50% 내외라는 점

③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업교사는 농업교육에 대한 신념 있는 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④ 이른 지향적인 농업교사 육성교육이 되고 있는 기존의 농업교육과 졸업자가 농업교사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오성삼, 1992)

⑤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학생들은 3년동안 합숙생활을 하며 농업교육을 받

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합숙교육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2) 특별교육과정 전개 내용

① 1학년

- 1학년동안 교내 수목원 및 온실의 화초류등의 이름과 특성을 기억하게 한다.

(1학년 2학기 농업개론 교과목 담당교수가 Slide나 채집본으로 기능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점수에 반영한다.)

- 1학년 2학기 말에 그 해 나온 화목류, 과수류등의 종자를 100개씩 수집하여 잘 씻어 음건시켜 내도록 한다.(채출자는 농업개론 교과목 점수에 반영하며 수집한 씨앗은 노천 매장해 됐다가 다음 봄 영농실습시에 교육농장에 파종하도록 한다.)

② 2학년

영농교육원에서 영농실습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 영농사상 및 농업직업관 고취교육
- 영농 체험실습
 - 작물재배 기초실습
 - 가축사육 기초실습
- 자치생활교육 및 「리더쉽」 교육
- 「레크레이션 지도」교육(농악등)
- 농업기계조작 실습교육 등이다.

영농실습 교육은 크게 농원에반과 축산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농원에반은 6시에 일어나서 건강체조와 구보를 하고 농업교육 농장에 가서 남녀학생 모두 삼과 팽이 삼덕추 등으로 토양을 일구어서 두둑과 이랑을 만들고 경운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경운과 정지작업을 해보도록 한다. 고구마 간이온상을 만들어 놓고 고구마순이 길면 순을 농업교육 농장에 옮겨 심어 놓고 가을 수확기에는 순천시내 유치원생들을 중심으로 자연학습 및 농업학습으로 고구마 캐기를 실시하게 한다.

또한 2년 전에 뿌려 놓은 각종 과수씨앗 대

목에 접붙이기 실습을 한다. 접붙이기 실습은 사전에 포푸라나 은백양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1인당 50개의 실습이후 실제 포장에 가서 실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삼목실습과 나무심기 조경실습을 함께 한다.

축산반은 4시에 일어나서 우사에 가서 청결정돈을 하고 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젖소 우유를 직접 손으로 짜는 실습을 한다. 착유는 기계착유를 하고 있으나 영농실습 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착유실습을 하게 한다. 증가축관리실습으로 돈사관리 실습과 모돈 및 비육돈 관리와 분만실습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매일 개인별 실습기록을 하며 조장은 그룹이 실시한 실습내용을 차트로 작성하여 매일 저녁시간에 보고회를 갖고 서로의 경험 나누기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및 태도 등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갖는다.

농업교육과 학생 영농교육실습 교육이수자는 다음 표(Ⅲ-4)와 같다.

〈표 Ⅲ-4〉 농업교육과 재학생 영농교육실습 현황

구분 년도(회수)	교육기간	장소	참가인원	교육비	비고
1985(1회)	4. 1~4. 27(4주간)	영농교육원	26명	자비 + 국비	3학년
1986(2회)	4. 7~5. 4(4주간)	"	28명	"	"
1987(3회)	3. 16~4. 11(4주간)	"	29명	"	"
1988(4회)	3. 13~4. 9(4주간)	"	30명	"	"
1989(5회)	3. 20~4. 1(2주간)	"	33명	"	2학년
1990(6회)	4. 15~4. 28(2주간)	"	28명	"	"
1991(7회)	4. 7~4. 20(2주간)	"	23명	"	"
1992(8회)	4. 6~4. 19(2주간)	"	29명	"	"
1993(9회)	4. 26~5. 8(2주간)	"	21명	"	"
1994(10회)	5. 2~5. 14(2주간)	"	20명	"	"
1995(11회)	4. 3~4. 15(2주간)	"	19명	"	"
계 : 11회			286명		

라. 영농실습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향

1) 영농실습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과정화와 유지발전

대다수의 학생들은 신념있는 농업교사 양성과정으로 영농실습교육은 대단히 유익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할 교육프로그램으로 반응하였다. 영농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 지향적 사고만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어서 본 교육프로그램은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유지·존속되어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 개편시 '92학년도부터 교육농장실습 교과목을 신설·포함시켜 학점화시킨 것은 고무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2) 경험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본 교육프로그램 특성상 정규 교과과정 내용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육농장에 위치한 영농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통하여 실시하므로 농촌현장과 농업교육 현장 체험자들을 강사로 편성하고, 현장 견학학습과 실습교육도 실제로 보고, 해 볼 수 있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교육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영농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영농교육원의 인적·물적·제도적 조직의 준비가 한 과정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학습 모형으로 성공시켜 내는 요체가 될 것이다.

3) 영농실습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운영

농업교육과 학생 영농실습교육 프로그램은 학과의 교육특성과 연계되어 구성·운영되겠지만 영농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영농기반이나 영농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시키려고 할 때는

적합한 자체 교육모형을 설정하고 있어야 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각 학과 및 기관별 교육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접합시키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요청기관과 합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영농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영농실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상의 근거 제시만 하고 있지 실제 운영은 영농교육원 교육시설을 빌려서 농업교육과가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정규 학교교육이 되고 있는 4월중에 주로 실시되고 있어서 정규 교과과정 운영에 교수·학생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어 교육성과를 배가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사회교육 전문요원 및 합숙지도강사 충원

영농교육원의 사회 교육적 업무수행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전담할 전문 사회교육 1급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사회교육원으로서의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교육법에서도 50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에는 반드시 사회교육 1급 전문요원을 두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사회교육 2급 전문요원을 두게 되어 있다.

대학의 사회교육원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합숙교육시 필요한 리더십훈련과 레크레이션 지도 등을 해낼 수 있는 전문요원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성인교육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에서는 합숙교육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선후배 및 집단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적 요소를 화합적·협동적 요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사회적응 및 리더십 배양에 크게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농업교육과 졸업생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실업교사로 임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농업계 고등학교의 운영과 학생지도에 가장 큰 어

려움이 자영농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숙사 중심의 합숙교육의 문제라고 보고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합숙지도 능력을 배양토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농업교사 훈련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으로 판단된다.

5) 자치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생들이 합숙교육을 받게 될 때는 모든 학생이 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율성과 협동성, 지도성과 사회성 등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자치활동교육의 성격과 방법을 바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교육조직을 구성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운영해야 한다. 때로는 정규 수업 시간보다 교육생 상호간의 경험나누기가 훨씬 유의한 교육프로그램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일이다.

5. 대학생 사회교육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 사회교육실습 교육과정 설치배경

1982년 12월 31일에 법률 제 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 9조(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1급 전문요원과 2급 전문요원으로 구분하며,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이수과목 학습성적 평균 80점 이상)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480시간 이상 받은 자는 사회교육 1급 전문요원의 자격을 받게 되어 있다.

사회교육법 시행령의 제 9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학의 5개 영역(공통필수, 사회교육학, 사회심리학, 직업교육학, 사회교육실습)을 확정하고 공통필수 2개 과목과 사회교육 실습분야는 반드시 이수해야 자격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서는

교과과정을 개편할 때 사회교육실습을 제외한 재반교과목을 교양과정과 농업교육과 및 사회교육과를 중심으로 사회교육학 영역의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회교육 실습은 교육부에 사회교육 시설로 등재된 기관에서 4주 이상 실습을 하여야 사회교육 실습 및 실무실습이 인정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순천대학교 부설 영농교육원을 대학부설 사회교육 시설로서 신고를 하여 1987년 9월 7일에 신고접수 통보를 받아 동년 10월 15일 이내로 사회교육 법령에 의한 재반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영농교육원을 대학부설 사회교육 시설로 등재시켰다.

그리하여 매년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영농후계자 교육과정 등에 사회교육실습 희망자를 받아서 사회교육 실무실습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나. 사회교육실습 교육과정 운영

각 대학 및 학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교육 실습생 교육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사회교육실습 4주간중 1주간은 참관실습을 영농교육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 설명과 대농민 사회교육이 지니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특성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과정 운영 내용을 살펴보고 사회교육현장 참관실습을 실시하며, 2~3주간에는 실무실습으로 농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영역별로 실제 참가하여 사회교육 원리와 방법적용의 실재를 파악하게 한다. 4주째는 농민사회교육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제내용을 분석 심사하며 결과평가를 하고 실습생 자신들의 사회교육 실습록을 통한 자기평가도 실시한다. 그리하여 사회교육 실습 참여내용을 포함한 본인의 사회교육 실습록을 영농교육원에 제출하고 실습평가를 받는다.

사회교육 실습평가는 무학점으로 정리하여 각 대학이나 학과로 사회교육 실습평가 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6. 시민대학 교육과정 운영

가. 시민대학 교육과정 설치운영 배경

순천대학교 부속농장내에 사회교육을 실시해 줄 영농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단기교육 및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민대학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은 주로 시민의식을 계발하게 하는 시민교육 중심의 사회교육이 대부분이며 주민과 지역사회 요구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활동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시민교육 대상이 주부, 노인 등으로 되고 있으나 시민생활에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86 Asian Game과 '88 Olympic Game에 맞추어 시민 서비스의식 계발을 시도해 보고자 순천시와 공동프로그램으로 개발 추진하였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 순천시와 각급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대학을 비정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시민대학 설치목적 및 운영방식

1) 1일 시민대학 설치목적은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시민참여행정을 유도하여 보다 밝고 풍요로운 순천시를 이룩하기 위하여 범시민 사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단계로 많은 시민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접객업소, 양곡상, 운수업체의 주인 및 종업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명랑하며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민주시민 정신을 고취시키는 시민교육에 목적을 두어 설치·운영되었다.

2) 1일 시민대학 설치운영 방법

① 1일 시민대학 설치운영 협의회를 두고 시민대학 교육계획, 실시, 평가등에 대한 활동을 추진케 하였으며 시민대학 운영협의회 구성은 사회교육 전문가, 각종 다중 접객업소 및 운수업체 조직대표, 시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대

표, 시정화추진협의회 대표, 시문화원장과 시 운영 실무진 등으로 구성, 운영하였다.

② 교육대상 및 인원은 1차적으로 다중 접객업소, 양곡상, 운수업체 주인 900명과 2차적으로 다중 접객업소 및 운수업체 종업원 1,200명을 교육하기로 하였으며 1일 50~60명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피교육자 선발은 동사무소와 다중 접객업소, 운수업체 대표 및 조직을 통하여 사전 홍보와 자체교육을 통하여 교육인원을 일정별로 배정하여 기본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참여와 독려, 차출 등으로 선발토록 하였으며 차출시는 교육실시 3일전에 교육안내장을 송부토록 하였다.

④ 교육시기 및 일정은 업주교육의 경우 1차로 2~3월중에, 종업원 교육은 2차로 7월중에 실시하였으며 교육일정은 모두 1일 교육으로 하였고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하였다.

⑤ 교육과정은 정신교육(의식개혁 포함), 전문교육(업소별로 구분 실시), 경제교육, 토의 및 설문시간으로 구성 운영 하였으며 내용은 업소별 조직대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성토록 하였다.

⑥ 강사는 전문직 종사자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각급 기관장, 대학의 전공교수,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⑦ 교육장소는 학생교육 및 사회교육 도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순천대학 부설 영농교육원을 이용하였다.

⑧ 교육비 일체는 시 재정에서 부담하였다(피교육자 증식비 및 수송 차량비 포함).

다. 시민대학 설치 운영내용

1일 시민대학 설치운영은 전항의 시민대학 설치운영방법에 따라 설치 하였으며, 여기서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전제한 바와 같이 교육내용은 식품위생업소(양곡상 포함), 환경위생업소, 운수업소별로 전

(양곡상 포함), 환경위생업소, 운수업소별로 전문교육내용만 달리 구성하고 다른 내용은 거의 같이 편성 운영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였다.

교육내용은 시민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신교육시간과 의식개혁 강의시간을 마련하였는데 정신교육은 각급 기관장들이 자기의 업무가 시민에게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여, 시민과 기관과의 간격을 좁히도록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정화운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의식개혁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였다. 전문교육을 식품위생업반(양곡

상 포함), 환경위생반, 운수업체반별로 식품위생, 환경위생, 보건위생, 교통안전등에 관한 전문내용과 직업생활자로서의 직업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직업윤리와 「서비스와 종업원의 역할」등을 강의하였으며 경제교육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파악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인간문제를 다루어 살기 좋은 복지과정과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또한 토의와 설문시간을 마련하여 대화방법 및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입소식과 수료식을 두어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참여하므로써 집합의식과 시민교육의 의의를 새롭게 하고 시민참여 행정의 중요성들을 인식케 하였다.

<표 III-5> 상설 1일 시민대학 교육계획인원 및 수료인원 현황

• 1차 교육(업주)

업소별 인원및비율	계	대 음식점	유 음식점	전 음식점	다 방	이 용업	미 용업	육 탕업	숙 박업	양 곡상	운 수 업체
계획인원(A)	900	450	13	17	61	50	50	6	153	50	50
수료인원(B)	925	463	9	16	64	58	50	8	158	49	48
비율(%) (B/A)	103	103	69	94	105	116	104	133	103	98	96

• 2차 교육(종업원)

업소별 인원및비율	계	일 반 음식점	대 중 음식점	전 문 음식점	간 이 주점	다 방	목 욕 탕	숙 박	이 용	미 용	버 스	택 시	관 광
계획인원(A)	1,280	140	107	84	168	94	78	84	79	150	112	96	88
수료인원(B)	1,245	88	190	49	153	195	14	52	55	21	188	210	30
비율(%) (B/A)	103	63	56	58	91	208	18	62	70	14	168	218	34

라. 시민대학 교육운영 개선방향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여 시민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삼고자 한

다.

1) 시민의식 계발을 위해서는 교육이 요구되며, 또한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

회의 변동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미래사회에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사회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시민대학 교육이수자 대부분이 처음으로 이러한 사회교육을 받았으나 아주 유익했고 이와 같은 교육은 수시로 실시했으면 좋겠고, 전 시민이 이러한 교육을 꼭 한 번씩 받아야 한다고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시민학교 설치운영은 성공적이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본 교육을 이수한 후 소외감을 갖기 쉬운 「서비스」업체 종업원들이 직업의식 고취와 긍지함양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서비스」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는 점은 큰 교육효과로 본다. 업소별 교육계획 및 수료인원을 보면 103%의 교육 이수율을 보였다.

3) 시민교육을 위하여 시 당국과 각급 기관, 조직대표, 사회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운영이 1·2차의 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 실시시 지역단위 사회교육추진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계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4) 시민대학 교육계획과 실시장소를 순천대학 부설 영농교육원 당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영농교육원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내의 대학은 사회교육 기구를 대학내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주민교육을 맡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민대학 교육실시가 단기(1일)이고 계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2월, 7월중) 실시하였으나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교육 전문가(순천대학 영농교육원 교수진)들이 계획에서 실시, 평가단계까지 참여하므로써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당국과 대학당국은 사회교육 전문가와 지도자 양성·충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형식적 학교교육이 부족했던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에게 실시한 이번 교육은 국민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단합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큰 의미를 졌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사회교육비를 책정·운영하도록 해야 한다(예: 순천시 예산에 시민교육비 책정·운영).

7)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협약이 이루어져서 「서비스」업체 조직대표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나 강의 위주의 교육은 문제점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공학을 이용한 교육방법 및 「레크레이션」지도가 이루어져서 사회교육은 유익하며 즐거운 교육임을 알게 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자진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8) 행정당국은 지역사회개발 선도의 역할수행을 해낼 수 있는 순천대학을 중심으로 사회교육원에 상설 프로그램(예: 순천대학 부설 영농교육원) 설치·운영하고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사회봉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은 전문화와 자동화 농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새농촌 개발인력으로 충원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농업과 농촌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하에 1980년에 설립된 대학중심의 농촌사회교육기관이다.

그 동안 영농교육원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여건 및 특수성에 맞추어 정부의 정

책과 일원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통한 농촌사회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간 실시해 온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정규과정에 입학한 농과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교육과정, 졸업생 중 정착영농희망자와 전라남도 시·군에서 추천받은 자영자를 중심으로 한 농민후계자 육성과정, 전문영농인 중심의 농업전문경영자과정(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시민의식 계발을 위한 시민대학과정 그리고 농업교육과생 영농실습 교육과정,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이수자 사회교육실습과정 등을 설치·운영하여 왔다.

정보화시대로의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정보의 산실인 대학이 중심이 된 주민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절대 명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국립대학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기본권 확보에 책무를 다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업지대에 대농민 사회교육기관으로 설치된 영농교육원의 지속적 발전과 활기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유지는 더없이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영농교육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적, 물적,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영농교육원이 대학부설 사회교육시설로 등재된 이상 역할수행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사회교육 시설과 인적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2) 세계화와 지역화·정보화와 다양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프로그램 개발과 전문화 및 자동화 농업경영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대농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전문요원 확보가 시급하며, 전문가와 동문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상설화 한다.

(3) 영농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의 대부분은 경영관리의식을 갖춘 새농촌지도자

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며, 다음이 국제화에 대비한 기술교육 습득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4) 영농교육원 교육은 체험 학습지도와 상호학습이 되도록 견학학습과 현장실습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견학지와 현장실습지를 확보·관리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견학학습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은 사전 준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룹별(개인별) 과제학습이 주어져서 여행이 아닌 학습이 되도록 체계화 및 효율화를 시켜야 한다.

(5) 영농교육원 교육프로그램중 리더십훈련을 위한 자치생활교육은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어서 의사 전달기법 및 상담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레크레이션 지도강사가 확보되어 효율적인 레크레이션 지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영농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독자성을 부여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여 발전적 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키도록 한다(예: 학점은 행제 도입한 야간학부과정 설치운영, 최고농업경영자과정→농업경영대학원 과정으로 개편 운영 등).

(7) 영농교육원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과정별 전담지도교수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전담지도교수는 미국의 제도처럼 농촌지도교육 전담교수(Extension Education Professor)가 되도록 한다(재학생 교육은 면제해 주거나 연간 1개 교과목만 담당하도록 한다).

(8) 영농교육원 교육이수자들의 영농활동이 지속화되고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교육이수자들을 위한 추수지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담요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문회 조직 활성화 체계를 확립한다.

(9) 농촌과 농민과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가 되게 하고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도시민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운영되도록 한다.

(10) 농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교육기관의 정보교환은 물론 상호평가와 협력 등을 위해 농민교육협의회의, 농촌지도학회, 전국사회교육협의회 등의 연구·개발·평가 정보교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의 사회교육기관과 관계유지를 개선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인식을 갖고 교·강사의 교환,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한다.

VI. 참고 문헌

1. 김성수. 한국농민교육의 학문적 전개와 전망, 1996. 한국사회교육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연차대회 세미나.
2. 김재기. 시민의식 계발을 위한 사회교육방법 연구, 1983. 순천대학 논문집 제2집.
3. 김재기. 한국과 대만의 농업계고등학교 영농후계자 육성·교육방법 비교 연구, 1993.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5권 제2호.
4. 권일남. 농어촌 청소년 육성현황과 정책 건의, 농어촌 청소년 육성의 현황과 정착방향, 1995. 한국농촌사회학회 동계학술대회 보고서.
5. 노충희, 대학평생교육원과 독학학위제의 연계방안, 1990. 한국산업교육학회 제2회 세미나.
6. 농촌인력개발 육성체계에 관한 연구, 199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농업개발연구소.
7. 농업전문경영자과정 교재(제1회), 1993. 순천대학교 부속 영농교육원.
8. 순천대학교 규정집 1992.
9. 순천대학교 요람(1993~1994).
10. 순천대학교 농과대학 특성화방안, 1995. 순천대학교 농과대학.
11. 안종만, 김재기 외. 1982. 후보새마을지도자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연구논문 제7집 제4권.
12. 영농교육실습록, 1990. (제7회, 순천대학 농업교육과).
13. 이양수·김재기 외. 1984.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마을운동 학술논문집.
14. 정명채. 1994.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15. 정영진. 1992. 대학의 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모형 개발, 순천대학교 대학발전연구 창간호.
16. 정지웅 외. 1995. 한·중 농업계대학의 사회교육 비교연구. 사회교육연구, 제20권.
17. 한국농업교육사, 1994.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농업교육사편찬위원회.
18. '88 영농교육실습관계철,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19. 8, 9회 농민후계자 교육관계철 및 설문조사철, 순천대학교 부속 영농교육원.
20. '95년도 농업전문경영자과정 계획서, 1995. 순천대학교 부속 영농교육원.